DOI: https://doi.org/10.28977/jbtr.2017.4.40.30

고전 히브리어의 노에틱적 해설과 그 적용*

— 욥기 1:1-5 —

오민수**

1. 들어가는 말

사람의 의사소통 행위는 각기 고유한 언어적 구조를 가진 두 개의 상이한 종류로 구분될 수 있는데, 직접화법으로 표현되는 '연설체'(speech), 그리고 간접화법으로 서술되는 '이야기체'(narrative)가 그것이다. 문학적 차원에서 볼 때, 전자는 '시'(lyric)와 '드라마'(drama)에, 후자는 '서사체'(epic)의 역사서술에 지배적으로 사용된다. 물론 한 작품 내에서 텍스트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두 종류의 화법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기도 한다. 구약성경의 텍스트들 역시 이와 상응하는 문학적 구조를 지니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두 종류의 문학적 형태를 구분하는 외적인 표지로 직접화법 도입 형식인 ויאמר와 כה אמר 이외에는 불분명하다.[1] 뮌헨의 게르마니스틱 언어학자인 하랄드 바인리히(Harald Weinrich)[2]는 '연설체'와 '이야기체'를 구분 짓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두 종류의 '발화 태도'(Sprechhaltung)를 전제하였는데, '긴장된 연설'(gespannte Rede)과 '이완된 연설'(entspannte Rede)이 그것이다.[3] 바인리히의 이러한 분류는 종전의 의사소통 행위를 구

---

* 본 논문은 2016년 4월 29일(금) 제101차 한국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필자의 소론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Christian-Albrechts 대학 구약학 박사, 현재 총신대, 대신대 강사. amicitia93@hotmail.com.

1) R. Bartelmus, *Einführung in das Biblische Hebräisch – ausgehend von der grammatischen und (text-) syntaktischen Interpretation des althebräischen Konsonantentexts des Alten Testaments durch die tiberische Masoreten-Schule des Ben Ascher: Mit einem Anhang Biblisches Aramäisches* (Zürich: TVZ, 1994), 196.

2) H. Weinrich, *Tempus. Besprochene und erzählte Welt*, Sprache und Literatur 16 (Stuttgart: C. H. Beck, 1971).

3) 장성길, "성경 히브리어 동사의 양태 특성 소고", 「성경과 신학」 54 (2010), 1-34. 장성길은 일반적인 양태 개념의 두 범주인 '인식적 양태'와 '의무적 양태'로 구분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전자는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명제의 사실성에 대한 화자의 시각과 가치 판단을 비추어준다. 이와 달리 후자는 지식과 정보의 사실보다는 행위자 개인의 동작 수행에 초점을 둔다.

분하던 도식이었던 '이야기세계'(Erzählwelt)와 '담화 세계'(besprochene Welt)[4]를 대체하게 되었다. '발화 태도'는 여러 시제의 형태를 만들어내며, 텍스트를 구성하는데 작용된다. 물론 바인리히의 이러한 구분은 인도유럽어를 연구할 때 유용한 문법적 카테고리로 적용될 수 있다. 가령, 독일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등에서 시제 구분의 기본 카테고리는 바인리히가 언급한 바와 같이 '발화 태도'로 이루어진다: 현재형, 완료형, 제1미래와 제2미래는 '담화 세계'에 속하며, 과거와 대과거와 접속법 1식과 2식은 '이야기세계'로 귀속된다.

이러한 바인리히의 언어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발화의 관점'(Sprechperspektive)만이 텍스트 접근에 반영되게 되며, 엄밀한 의미에서 그의 언어학 이론은 발화 체계가 만들어 내는 여러 가지 시제 형태들이 시간이나 사건과는 아무런 연관 없이 작동되고 있다는 접근 방법론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5] 이뿐만 아니라 그의 언어이론 체계는 인도-게르만 어족에 속한 언어학적인 구분 체계를 셈어인 히브리 언어에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옮겨놓아 활용한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바인리히가 언급하였던 인도-게르만 어군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종류의 동사의 형태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사건(또는 사실, 동작)이 시간 관계에서부터 자유롭게 연출되는 바인리히의 언어 체계를 구약성경 중 반 이상을 차지하는 역사 서술체에 사용하여 분석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일 것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연설체'와 '이야기체'라는 일반적인 의사소통 행위의 구분이 셈 문화권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고는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연설체'와 '이야기체'의 시제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화법 체제에 모든 시제가 전부 사용될 수 있는 것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표현적 측면에서 볼 때, 히브리어에서는 단지 '바브 결합형'(syndetic)과 '바브 미결합형'(ayndetic)만 존재하는데[6], 후자가 시문학에 지배적이라면, 전자의 경우 이야기나 역사 서술에 주로 사용된다. 그 밖에 사건이나 동작을 유발하는 태(modus/mood)인 명령법(jussive, imperative, cohortative)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기존까지 유효하였던 '연설체'와 '이야기체'라는 구분은 히브리어 접근에 있어서 그 한

4) 비교, E. Güttgemanns, *Die Funktion der Zeit in der Erzählung*, Forum theologiae linguisticae 23:4 (Bonn: Linguistica Biblica 1974), 56-76; E. Lämmert, *Bauformen des Erzählens*, Metzler Studienausgabe (Stuttgart: Metzler, 1989), 23, 각주 2번.

5) R. Bartelmus, *Einführung in das Biblische Hebräisch*, 197.

6) Ibid., 199-200.

계에 도달하게 된다.

1.1. 문제 제기

‘들어가는 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대 언어학적(textlinguistic) 입장에서 성경 히브리어의 접근은 유용하기나 하나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다. 따라서 성경 히브리어의 시제 체계(또는 시상 체제)를 구성함에 있어서, 시제와 시간과 발생한 사건(또는 동작)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언어학적 규명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텍스트의 종류와 구조를 분석하고 이해해야 할 것이 요청된다. 그리고 성경 히브리어적인 특성을 주목한 히브리 언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언어학적 체계는 의미론적 차원에서 본문의 주해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은 분명할 것이다.

1.2. 본 소고의 목적

본 소고에서 필자는 아래의 논술을 통해서 셈어의 독특성을 포착할 수 있는 접근 방법들 중 하나로 다중언어 간의 불변 상수를 기초로 하여 텍스트를 이해하는 노에틱 이론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노에틱 이론을 갈무리하여 이를 히브리어 동사 체계에 접목하여 구문론과 의미론(그리고 부분적으로 화용론)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이해를 제시한 뤼디거 바텔무스(Rüdiger Bartelmus)의 동사 구문론의 이론적 체계를 간략하게 소개한다.[7] 그리고 이 문법 체계를 기초로 하여, 욥기 1:1-5에 대한 주해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

7) R. Bartelmus, *HYH: Bedeutung und Funktion eines hebräischen <Allerweltswortes> - zugleich ein Beitrag zur Frage des hebräischen Tempussystems*, ATSAT 17 (St. Ottilien: EOS Verlag, 1983). 그의 이론은 전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동사의 형태들의 문법적인 기능들을 노에틱 체계 안에 정리하여, 하나의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가질 수 있는지 설명과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사 유형론적 입장에서 시상과 시제와 양태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연구의 성과를 통해서, ‘문맥에 따른 이해’라는 표현 안에 이루어졌던 구문 분석이 범주화되었다. 국내 학자 중에 하나의 동사 체계 안에 시간과 상, 양태를 공히 다룬 논문으로는, 우상혁, “성경 히브리어 동사형태 연구: 시간, 상, 양태를 중심으로”, 「개혁논총」 17 (2011), 41-73 참조. 이와는 약간 차이 나는 시각에서 장성길, “성경 히브리어 동사 체계 내에서의 발화수반 행위 이론과 양태성 개념에 기초한 텍스트의 기능에 대한 소고”, 「성경과 신학」 54 (2010), 1-34 참조. 장성길은 양태가 ‘익톨(yiqtol)’과 ‘베카탈(w^eqatal)’이 지니는 주된 기능임을 역설한다.

2. 본론

2.1. 노에틱 이론 일반

노에틱은 복수의 언어 간의 불변의 상수를 연구하는 언어학의 분야이다.[8] 이 연구 분야의 개척자인 코슈미더(E. Koschmieder)는 노에틱의 문법적인 범주의 기능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시적인 관계'(synchrone Beziehung)와 '통시적인 관계'(diachrone Beziehung), 두 층위가 있다고 말한다.[9] '공시적인 관계'가 주기능(Hauptfunktion/main function)과 다양한 부기능(Nebenfunktionen/side functions)을 구분하는 것을 관심 분야로 한다면, '통시적인 관계'는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im Entstehen begriffen)과 '완전히 구현된 시점'(voll wirkend), 그리고 '이제 막 종료되는 시점'(im Absterben befindlich)을 구분하여 기능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공시적 관계에서 문법적 기능을 설명해 본다면, 한글에서 현재형의 주기능은 시제적인 현재이다: '나는 잠을 잔다.' 그런데 현재형 역시 특정한 언어적 상황에서는 명령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군에서 취침하기 전, 취침하사관의 말 "(너희들) 잠을 잔다!"

현재형의 두 문법적 기능에서 보는 것처럼, 주기능은 다른 문법적 카테고리와 상호교환이 불가능하고 대립적인 성격을 지닌다. 반면, 부기능은 주기능과 논리적인 연관성은 있다 하더라도 다른 문법적인 카테고리와 상호교환이 가능한 공시적인 맥락의 층위이다. 문법적 기능을 지시하는 바가 문법적 카테고리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코슈미더는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이후의 언표의 구분인 '시니피앙'(das Bezeichnende/Signum) 대신에 '의표'(das Meinende)를, '시니피에'(das Bezeichnete/Designatum) 대신에 '의의'(das Gemeinte/Intentum)라는 용어를 도입한다. '의의'는 '기의'보다 더 광의적인 범주의 용어로, '의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화 행위와 문장의 전후를 문맥적으로나 정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코슈미더에 따르면 노에틱의 과제란 '의표'와 '의의'를 설명하는 데 있다. '의의'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인간의 사고는 '3가지 차원'[10]을 동시에

8) E. Koschmieder, "Die noetische Grundlage der Syntax", E. Koschmieder, ed., *Beiträge zur allgemeinen Syntax* (Heidelberg: Carl Winter, 1965), 70-89.

9) E. Koschmieder, "Zur Bestimmung der Funktionen grammatischer Kategorien", E. Koschmieder, ed., *Beiträge zur allgemeinen Syntax* (Heidelberg: Carl Winter, 1965), 12-13, 55.

10) E. Koschmieder, "Das Gemeinte", E. Koschmieder, ed., *Beiträge zur allgemeinen Syntax*, 101-106. "Die Dreidimensionalität der Noetik lässt sich wie folgt darstellen: 1. die Dimension

통합하고 있는데, 그것은 '명명하는 작업'(개념정의), '존재론적 시간화 작업'(시간과 공간), 마지막으로 '언어 수행 차원'(상연, 유발, 통지)[11]이다. 노에틱의 이러한 '3차원 공리'는 개별 연구자의 언어와 상관이 없이 구문론적인 요소를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명명할 수 있게 해 준다. 코슈미더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사건(사실, 행위)은 모두 시간 지연 현상에 종속됨을 관찰하고, 시간의 방향(← 완료/미완료 →)과 시간의 등급(Zeitstufen/과거, 현재, 미래)을 각각 구별하였다.

2.2. 노에틱의 셈어 해설

셈어학자, 아돌프 덴츠(A. Denz)[12]는 노에틱의 사건 분석의 이해를 받아들여, 시간적으로 한정된 사실(사건)을 세 종류로 구분하였다. 이는 '단회적이고 개별적인 사실'(einmalig individueller Sachverhalt)과 '다회적이고 개별적인 사실'(mehrmalig individueller Sachverhalt),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사실'(genereller Sachverhalt)이 그것이다. 그밖에 시간적인 진행에 종속되지 않는 '열외적인 사건'(extratemporeller Sachverhalt)이 있는데, '보편적인 사건'(allgemeingültiger Sachverhalt)이 그것이다. 단회적이거나 다회적인 개별적인 사건의 특징은 시간의 선상에서 볼 때, 그 사건의 시작점과 종결점이 있다. '일반적인 사건'은 시간 상에 펼쳐지기는 하지만, 전형적인 것이거나 종의 특징에 일치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관습이나 예법, 법률, 직업적인 활동 등이 일반적 사건의 범주에 속한다.

덴츠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건'은 '순전한 현재시제'로 현재와 미래를 포괄한다. 예를 들어, '그는 영어를 가르친다.'라는 문장은 시간적으로 제한된 시제로 표현되기는 하나, 직업적 성격을 뜻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일반적인 사실로 전환될 수 있다: '그는 영어를 가르친다.' = '그는 영어선생님이다.' 반면, '보편적인 사건'은 시간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지속되는 종류의 것들인데, 자연법칙, 수학이나 논리적인 법칙, 두 대상(사물) 사이의 관계를

---

der Operation der Bennenung, 2. die Dimension der Operation der ontologischen Verzeitung, 3. die Dimension der sprachlichen Leistungsdirektive." 코슈미더(E. Koschmieder)는 3항을 "심리적인 수행지시"(die psychologische Leistungsdirektive)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11) 코슈미더는 카를 뷜러(Carl Bühler)의 연구서 *Sprachtheorie: Die Darstellungsfunktion der Sprache* (Stuttgart: G. Fischer, 1934), 28-30에 따라, 언어 수행 차원을 "Darstellung", "Auslösung", 그리고 "Kundgabe"로 분류한다.

12) A. Denz, *Die Verbalsyntax des neuarabischen Dialekts Kwayriš (Irak): Mit einer einleitenden allgemeinen Tempus- und Aspektlehre*, Abhandlung für die Kunde des Morgenlandes XL:1 (Wiesbaden: Steiner, 1971), 4-18.

진술하는 문장 등이 이에 속한다. '보편적인 사실'은 '일반적인 사실'과 정도 상 구별될 뿐, 원리적으로 동일하다 할 수 있다.

또한 개별 사건은 발생시점에서 정지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라 '과거에서 미래'(Vergangenheit → Futur)로 이동해간다. 만일 그 사건이 전개시키는 사건 속의 시점과 연관시킬 경우, 개별 동작(사건)들은 세 가지 특성들로 — 전시성'(Vorzeitigkeit), 또는 '동시성'(Gleichzeitigkeit) 그리고 마지막 경우로는 '후시성'(Nachzeitigkeit) — 기술될 수 있다. 덴츠의 연구에 따르면, 사건을 관찰자의 '현재시점'과 연관시킬 경우, '시제'(Tempus)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며, 그 사건이 지연되는 '시간 경과'(Zeitablauf)와 연관될 경우에 '시상'(Aspekt)이 생겨나게 되고, 시상은 다시 '완료 시상'과 '미완료 시상'으로 구분될 수 있다.[13]

2.3. 노에틱 체계에 기초한 동사구문론 정립

셈어 어문학자, 바텔무스는 이러한 덴츠의 일반 언어이론을 히브리어 동사구문에 적용하여 히브리어 동사 체계를 노에틱 이론 위에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기존의 히브리어 동사구문론을 재정립한다. 바텔무스는 시제 구분에 있어서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를 구분하는 것은 인도-게르만어에서 시제를 어형적으로 구현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며, 이와 달리 히브리어에서는 단지 어형적으로 두 개의 동사 형태만 존재함을 주목한다.[14] 그러므로 히브리어의 어형적 구분은 '카탈(qatal)'과 '익톨(yiqtol)'이란 두 형태가 전부이며, 이에 복합시제인 '베카탈(w^eqatal)'과 '봐익톨(wayyiqtol)'을 포함한다면 시제 표현형은 총 4개가 된다.

히브리어의 고전적인 시상 이론의 시상 구분에서는 화자나 저자가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는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종료된 완료와 사건이 종료되지 않은 미완료만 표현하게 된다. 시상적인 완료와 미완료는 문법적인 카테고리인 완료형(qatal)과 미완료형(yiqtol-LF)과 일치한다. 이러한 동사 체계에서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라는 것은 단지 간접적으로 종합되어 표현될 뿐이다. 성경 히브리어의 고전적인 시상 이론(reiner/subjektiver Tempussystem)은 히브리어 고대시들(미리암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의 일부, 홍해 노래, 일부 시편)을 이해하는 데 일정 정도 해설의 모델이 될 수 있으나, 대다수 이야기체의 서술

13) A. Denz, "Tempus und Aspekt? Vorstellung eines neotischen Modells", N. Nebes, ed., *Tempus und Aspekt in den semitischen Sprachen*, Jenaer Beiträge zum Vordern Orient, Band I (Wiesbaden: Harrassowitz, 1999), 37-41.

14) R. Bartelmus, *Einführung in das Biblische Hebräisch*, 202.

에는 유용하지 못하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 다른 한편, 고대 이스라엘은 왕국 시기(주전 1000-586년)와 포로기후기 전기시대에 더욱 정밀한 시제 체계가 정립되었는데, 이를 통하여 복잡한 사건들을 시간적으로 뚜렷이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상대적인 시제 체계'(relativer Tempussystem)가 만들어지게 되었다.[15]

'상연'(Darstellung)의 차원에서 동사의 주기능(Hauptfunktion)은 '단순 시제'(simple tempora)로 표현되는데, '카탈(qatal)'은 완료로 '전시성'을, '코텔(qōtel)'은 형용사적으로 '동시성'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톨(yiqtol)'은 미완료로서 '후시성'을 구현하게 된다. 그리고 시간관계와는 독립적으로 '익톨(yiqtol)'은 '일반적이거나 반복적인 사건'을 부기능으로, '코텔(qōtel)'은 '보편적인 사건'을 부기능으로 각각 나타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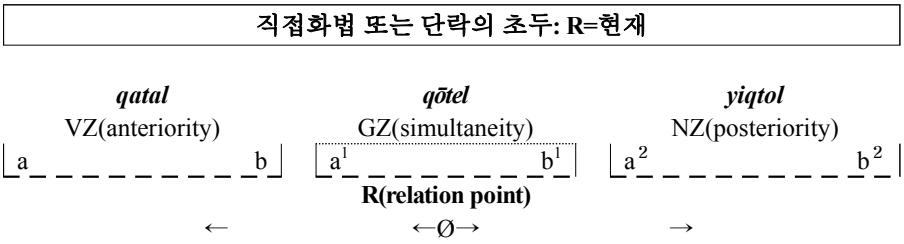
단순 시제들은 단지 시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건(사실)과 시간관계에 있어서 저마다 구별되는 방향 계수를 표현하고 있는데, 완료형이 후행적(retrospektiv, ←)이라면, 미완료형의 방향 계수는 전행적(prospektiv, →)이다.[16] '코텔(qōtel)'은 미완료와 완료 사이의 방향 계수에 있어서 중립

15) R. Bartelmus, *Einführung in das Biblische Hebräisch*, 204. 비교, H. Weinrich, *Tempus. Besprochene und erzählte Welt*, Sprache und Literatur 16 (Stuttgart: C. H. Beck, 1971), 55-57. 바인리히(H. Weinrich)는 텍스트의 종류에 따라 '이야기된 세계'(Erzählte Welt)와 '담화세계'(Besprochene Welt)를 구분한다. 그는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언어적 태도'(linguistic attitude/narration and comment), '초점'(pointing out/foreground and background), '언어적 관점'(linguistic perspective/recovered information, main narrative level, advanced information)을 분석의 지표로 삼아 텍스트를 분석하는데, 그의 이론은 볼프강 슈나이더(W. Schneider)와 알비에로 니카치(A. Niccacci), 롱에이커(R. E. Longacre)의 문법에 큰 반향을 주며 히브리어 분석과 구문해설에 활용된다. 바인리히의 이론에 따르면, 히브리어의 다양한 시제의 행태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시간이나 비언어적으로 표현되는 '의의'(Intentum)를 지시하지 않고 이야기의 "화자의 관점"(Sprecherperspektive)이나 경우에 따라 "윤곽"(Reliefgebung)을 가리킨다. W. Schneider, *Grammatik des biblischen Hebräisch* (München: Claudisu, 1974); A. Niccacci, *The Syntax of the Verb in Classical Hebrew Prose*,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8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0); R. E. Longacre, "Discourse Perspective on the Hebrew Verb: Affirmation and Restatement", Walter R. Bodine, ed., *Linguistics and Biblical Hebrew* (Winona Lake: Eisenbrauns, 1992), 177-189; R. E. Longacre, "Weqatal Forms in Biblical prose", Robert D. Bergen, ed., *Biblical Hebrew and Discourse Linguistics* (Dallas: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Winona Lake: Eisenbrauns, 1994), 50-98.

16) 여기서 바텔무스(R. Bartelmus)의 '방향 계수'는 바인리히와 크리스토프 하드마이어(C. Hardmeier)의 연구와는 독자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바인리히의 "화자의 관점"(Sprecherperspektive), 그리고 하드마이어의 전문 술어인 "시제 지시"(temporaldeiktisch)의 개념을 다루고 있다. C. Hardmeier, *Textwelten der Bibel entdecken: Grundlagen und Verfahren einer textpragmatischen Literaturwissenschaft der Bibel*, Textpragmatische Studien zur Literatur- und Kulturgeschichte der Hebräischen Bibel, Band 1:1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3), 94-101; H. Weinrich, *Tempus. Besprochene und erzählte Welt*, 55-57.

(neutral, ←Ø→)이다. '상대적인 준거 시점'(R/relation point)[17]으로부터 보았을 때, 완료와 미완료는 모두 시간 지연 현상에 종속되어 a-b, a^2-b^2이라는 시간의 공간적인 차원을 가진다면, 동시성은 중립 지역으로 a^1-b^1 사이에 그 자리를 점유하게 된다. 상대적인 시제 체계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1) 상대적인 시제 체계



완료와 미완료는 그 성격상 '시점적인(punctuality)' 반면, 동시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코텔(qōtel)'은 '지속성(duration)'을 지닌다. '바브(ו)'[18]와 합성동사형(syndesis)인 '봐익톨(wayyiqtol)'과 '베카탈(w^eqatal)'은 문장 속에서 단순한 동사 형태에 도달한 시간의 층위를 일정 정도 분명히 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봐익톨(wayyiqtol)'은 단순히 과거진행을 표현하고, '베카탈(w^eqatal)'은 미래진행 또는 일반적이거나 반복적인 사실들을 표현한다. '베카탈(w^eqatal)'은 '상연(Darstellung)'의 차원을 벗어나면 '익톨(yiqtol-KF)'의 기능처럼 – 종종 '케톨(q^etol)' 이후에 위치하여 – 소원이나 명령을 지속한다. 구문론적으로 볼 때, 바브 합성동사형은 항상 문장의 초두에 위치하며, 단순동사형은 '임의적인 비동사 구성 요소'(x) 이후에 위치한다.[19] 이러한 합성동사형을 단순동사와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부기능적 차원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 단순동사와 합성동사형의 관계 I

---

17) 상대적인 준거 시점(R)은 화자나 저자가 어떠한 관점에서 사건(사실)을 재현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개별적인 사건들은 임의적인 준거점에 의해서 상호 배열되어 화자나 저자는 청자나 독자의 주의를 이끌고 있다.

18) 발터 그로쓰(Walter Gross)의 연구에 따르면 내러티브에서 이야기 체인에 사용된 'waw'는 진행을 알려주는 '길라잡이'(Progressanweiser)의 기능을 한다. W. Gross, *Verbformen und Funktion: WAYYIQṬL für die Gegenwart. Ein Beitrag zur Syntax poetischer hebräischen Schriften*, ATSAT 1 (St. Ottilien: EOS Verlag, 1976), 153.

19) 직접화법은 위의 규칙에서 예외에 해당한다.

직접화법 또는 단락(본문)의 초두: R≒현재			
동사형	***qatal***	***qōtel***	***wayyiqtol***
발생시점[20]	VZ	GZ	progress
시간경과	perfective	imperfective	perfective
동작형	punctual	durative	punctual
방향계수	retrospective	Ø	prospective
	←(역행)	←Ø→	(진행)→

(3) 단순동사와 합성동사형의 관계 II

직접화법 또는 단락(본문)의 초두: R≒현재			
동사형	***qatal***	***qōtel***	***w^{e}qatal***
발생시점	VZ	GZ	progress
시간경과	perfective	imperfective	imperfective
동작형	punctual	durative	punctual
방향계수	retrospective	Ø	prospective
	←(역행)	←Ø→	(진행)→

내러티브에서 주어의 전환이나 주어를 부각시킬 때, 경우에 따라 '베-익스-익톨(w^{e}-x-yiqtol)'을 사용한다. 그러나 '익톨(yiqtol)'의 미완료적이며 시점적인 기능으로 인하여 문맥에 따라 동작의 '기동'(ingressive)[21]을 뜻하기도 한다. '봐익톨(wayyiqtol)' 이후에 오는 '베-익스-카탈(w^{e}-x-qatal)'의 경우, 다루어진 사건(사실, 동작)이 R 이후에 위치할 수 있다.[22] 그러할 경우 '베-익스-카탈(w^{e}-x-qatal)'의 점진적 사건 진행(progress)이 아니며 '새로운 도입'(relative new entry)을 알리는 관용적인 표현이 된다. 이때 내레이터는 숨을 가다듬고 다음 장면을 도입한다. 반면, 다루어진 사건이 R 이전에 위치할 경우 점진적 사건진행은 전진을 뜻하지 않고 역행(regress)을 뜻하므로 배경정보(HG/background information)를 전달하거나 대과거(pluperfect)를 뜻한다.

---

20) R. Bartelmus, *Einführung in das Biblische Hebräisch*, 206. 발생 시점은 "Zeitlageverhältnis", 시간 경과는 "Zeitablaufsverhältnis", 동작형은 "Aktionsart"(="시상"), 방향 계수는 Richtungskoeffizient를 가리킨다.

21) R. Bartelmus, *HYH: Bedeutung und Funktion eines hebräischen <Allerweltswortes>*, 60-61. 바텔무스는 yiqtol의 기동적 용법에 관해서 S. R. Driver, *A Treatise on the Use of the Tenses in Hebrew and Some Other Syntactical Questions*, The Biblical Resource Serie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892), 27-29와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22) A. Niccacci, *The Syntax of the Verb in Classical Hebrew Prose*, 68. 이에 반하여, 니카치는 시제와 시상 체계보다는 구문에서의 문법적 구성 요소의 위치의 변화가 동사의 역할을 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별한 경우, ‘베-익스-카탈(w^{e}-x-qatal)’은 이전과 이후에 진행된 두 사건(사실)의 동시적으로 끝나는 대립적인 관계(adversative relation)를 의미하기도 한다.[23] ‘베-익스-코텔(w^{e}-x-qōtel)’은 동시성으로 순전한 현재의 지속적인 사건일 경우 ‘보편적인 사건’이나 ‘부대상황절’(circumstantial clause)을 인도할 수 있다. 동작이나 사건의 ‘유발’(Auslösung)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명령은 그 자체로 후시성을 지니므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단순동사형과 합성동사형은 구문론적으로 접속사 ‘바브’로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24]에 따라 주정보(VG/foreground information)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 ‘추가적’(additional)이고 ‘보족적인 설명’(epi-exegetical) 뿐 아니라 사건의 ‘종결’(conclusion)과 ‘요약’(resume)을 알려주기도 한다.

2.4. 노에틱적 접근의 활용: 욥기 1:1–5

2.4.1. 본문

[약어풀이]

R: 상대적인 준거 시점 / VGA: 주정보 단락(본문)의 서두 / VG: 주정보
HG: 배경 정보/ IP: 정보 진행 / LI: 독서 정보 / RE: 요약

1aα	אִישׁ הָיָה בְּאֶרֶץ־עוּץ	x-qatal	VGA
1aβ	אִיּוֹב שְׁמוֹ		LI
1b	וְהָיָה הָאִישׁ הַהוּא תָּם וְיָשָׁר וְירֵא אֱלֹהִים וְסָר מֵרָע	w^{e}qatal w^{e}qōtel	IP
2	וַיִּוָּלְדוּ לוֹ שִׁבְעָה בָנִים וְשָׁלוֹשׁ בָּנוֹת	wayyiqtol	VG
3a	וַיְהִי מִקְנֵהוּ שִׁבְעַת אַלְפֵי־צֹאן וּשְׁלֹשֶׁת אַלְפֵי גְמַלִּים	wayyiqtol	VG
	וַחֲמֵשׁ מֵאוֹת צֶמֶד־בָּקָר וַחֲמֵשׁ מֵאוֹת אֲתוֹנוֹת וַעֲבֻדָּה רַבָּה מְאֹד		
3b	וַיְהִי הָאִישׁ הַהוּא גָּדוֹל מִכֹּל־בְּנֵי־קֶדֶם	wayyiqtol	VG
4a	וְהָלְכוּ בָנָיו וְעָשׂוּ מִשְׁתֶּה בֵּית אִישׁ יוֹמוֹ	w^{e}qatal w^{e}qatal	IP

23) R. Bartelmus, “Sachverhalt und Zeitbezug: Pragmatisch-exegetische Anwendung eines noetischen Theorems auf 1 Kön 1”, R. Bartelmus, ed., *Auf der Suche nach dem archimedischen Punkt der Textinterpretation. Studien zu einer philologisch-linguistisch fundierten Exegese alttestamentlicher Text* (Zürich: Pano Verlag, 2003), 355-381.

24) 구문적으로 문법적 용어로 ‘비접속구문(syndesis)’과 ‘접속구문(asyndesis)’으로 구분된다. 시가문학은 ‘비접속구문’이 많이 나타나고, 내러티브에서는 ‘접속구문’이 주로 사용된다.

4bα	וְשָׁלְחוּ וְקָרְאוּ לִשְׁלֹשֶׁת אַחְיֹתֵיהֶם	w^{e}qatal w^{e}qatal	IP
4bβ	לֶאֱכֹל וְלִשְׁתּוֹת עִמָּהֶם		IP
5aα	וַיְהִי כִּי הִקִּיפוּ יְמֵי הַמִּשְׁתֶּה וַיִּשְׁלַח אִיּוֹב וַיְקַדְּשֵׁם	wayyiqtol *kî qatal* wayyiqtol wayyiqtol	VG
5aβ	וְהִשְׁכִּים בַּבֹּקֶר וְהֶעֱלָה עֹלוֹת מִסְפַּר כֻּלָּם	w^{e}qatal w^{e}qatal	IP
5aγ	כִּי אָמַר אִיּוֹב	*kî* qatal	HG
5bδ	אוּלַי חָטְאוּ בָנַי וּבֵרְכוּ אֱלֹהִים בִּלְבָבָם	*'ûlay* qatal w^{e}qatal	HG
5b	כָּכָה יַעֲשֶׂה אִיּוֹב כָּל־הַיָּמִים פ	*kākāh* yiqtol	RE

2.4.2. 번역

1aα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1aβ	그의 이름은 욥이다
1b	저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였다
2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세 명이 태어났고
3aα	그의 소유물은 양이 칠천이요 낙타가 삼천이요
3aβ	소가 오백 겨리요 암나귀가 오백이요 종도 심히 많았다
3b	저 사람은 동방의 모든 자손들 중 가장 큰 사람이었다
4a	그의 아들들은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가서 잔치를 베풀고
4b	*사람을* 보내 그들의 세 누이를 불러 더불어 먹고 마시곤 하였다
5aα	잔치의 날들의 순서가 끝나면 욥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5aβ	*그는 관례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의 모두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5aγ	이는 욥이 생각하였기를
5b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욕하였을까 하였다
5b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2.4.3. 구문의 의미론적 해설

1aα	VGA	권두의 시작은 '익스-카탈(x-qatal)'로 어느 과거의 한 시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됨을 알리며, 시제적으로 상대적인 준거점인 R을 정해준다: 저자는 독자에게 한 사람을 소개한다. 단회적이고 개별적인 사실로 '카탈(qatal)'이 사용되었다.
1aβ	LI	동격용법(identification)의 명사문을 사용하여 저자가 소개하고픈 사람이 욥임을 밝힌다. 동격용법은 화자와 청자라는 화용론적 구도[25]에서는 독서 정보를 알려준다. 독서정보는 시간적으로 구조화된 역사적 사건의 상연(재연)의 바깥쪽에 위치한다.
1bα	IP	정보 진행은 독서정보와는 달리 사건이 서술로 표현되는 시간 선상 위에 위치한다. '베카탈(w^eqatal)'은 욥이란 사람의 성격의 특징(온전, 정직, 하나님을 경외)을 표현하며, 마지막 '베코텔($w^eqōtel$)(1bβ)'은 이러한 전형적인 성격의 요약으로 '악을 멀리하였다'라고 말한다. 여기에 사용된 '베코텔($w^eqōtel$)'은 R에서 볼 때 과거의 '일반적인 사실'(genereller Sachverhalt)로 이해할 수 있다. 이로써 저자는 독자들에게 머나 먼 과거 시점에서 욥이란 사람을 소개하고, 그 사람의 사람됨을 간단히 정리해 준다.
1bβ	RE	
2	VG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진행으로 '익스-카탈(x-qatal)(1aα)'에 이어서, 2절은 내러티브 합성동사형 '봐익톨(wayyiqtol)'로 연결된다: 욥에게 아들 일곱과 딸 세 명이 태어났다.
3a	VG	역시 '봐익톨(wayyiqtol)'로 본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욥의 소유가 많음을 알린다.
3b	VG	본이야기로 욥이 동방의 자손들 중 가장 큰 자로 알린다.
4a	IP	그의 아들의 잔치의 습관을 4회의 '베카탈(w^eqatal)'에 나타내며, 이러한 잔치의 배후정황은 2회 연이어 오는 '릭톨(liqtol)'("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기 위하여", 4bβ)에 밝히고 있다.
4b		
5aα	VG	'봐익톨(wayyiqtol)'로 첫 번째 단락(욥 1:1-5)의 전면에 내세울 본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그들의 생일 잔치가 끝나면 욥은 사람을 보내어(그들을 문의하여 보고) 번제를 드리며 자신들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어지는 '베카탈(w^eqatal)(5aβ)은 욥의 경건한 관습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5aα의 '봐익톨(wayyiqtol)'은 전면에 초점을 맞추는 이야기의 서두로 저자의 '서설'(exposition)에 해당한다.[26]

25) 권성달, "성서 히브리어 명사 문장에서의 한정성에 관한 연구 – 앤더슨, 제네트, 글리너트의 이론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9 (2011), 7-28. 권성달은 명사문의 한정성을 연구하였는데, 그는 주어와 술부를 화용론 구도인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서 명확히 정리하여 주고 있다. 그리고 그는 "성서히브리어 명사 문장의 어순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35 (2014), 170-194에서 명사문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술어의 한정성이 주어의 한정성보다 높을 수 없음을 밝혔다(참조, 185).

26) '봐익톨(wayyiqtol)'의 구문론적인 기능과는 달리, 데이비드 J. A. 클라인스(David J. A.

5aβ	IP	욥이 자식들을 위한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의 관습을 '베카탈(w^{e}qatal)'로 표현하였다: 욥이 드린 번제의 일반적인 관례(일찍 일어남, 각각의 명수대로 번제물을 바침)를 소개한다.
5aγ	HG	R에서부터 앞으로 진행하던 사건은 구문적으로 '익스-카탈(x-qatal)'(직역: '이는 욥이 [...] 말했었기 때문이다.')로 역행(Regress)하게 되며, 욥의 번제를 드린 '뒷 배경'이 무엇인지 그 사유를 추가적인 정보로 밝힌다. 추가적인 정보의 내용들은 1bβ("악을 멀리하는 자였다.")와 일치한다.
5aδ	HG	이야기 사슬 '익스-카탈 베카탈(x-qatal w^{e}qatal)'에서 '베카탈(w^{e}qatal)'은 '익스-카탈(x-qatal)'과 동일한 시점의 행위(punctual simultaneity)를 지시하는 '동시적인 경우'(coincident case)이다.
5b	RE	'익스-익톨(x-yiqtol)'로 일반적인 사실을 알려주며, 이와 동시에 asyndetic한 전후 문장 연결을 통해 첫 번째 단락(욥의 성품, 자녀, 부함, 하나님 경외)을 정리하여 요약(resume)하여 준다: 그 시절 욥의 행실은 항상 악에서 떠나려는 경건함이 있었다고 함으로, "악을 멀리하는 자였다."(1bβ)가 5b에서 내용적으로 성취된다. 욥기의 저자는 inclusio라는 기법으로 전 단락의 내용을 묶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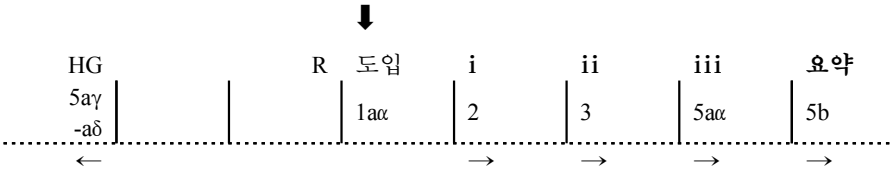
2.4.4. 의미론적 해설에 따른 내용의 구성의 층위

주사건 진행	정보 진행	배경 정보		독서 정보
1aα			[도입] 우스 땅에 한 사람 소개	
			욥	1aβ
	1bα		인물묘사(온전, 바름, 하나님 경외, 악을 멀리함)	
	1bβ			
2			[i. 이야기 진행] 1aα로부터 이어짐: 일곱 아들과 세 딸	
3a			[ii. 이야기 진행] 소유가 심히 많음, 동방에서 큰 자	
3b				
	4		아들들의 잔치 관습	
5aα			[iii. 이야기 진행] 1aα와 2절과 3절에 이어짐: 자녀들을 위한 욥의 번제	

Clines)는 5aα의 wayyiqtol을 frequentative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클라인스의 입장은, 그 이후에 오는 구절에서 묘사하는 욥의 경건한 관습적인 행위를 5aα의 구문에 소급하여 이해한 결과이다. David. J. A. Clines, *Job 1-20*, WBC 17 (Dallas: Words Book, 1989), 3.

	5aβ		제사의 관습	
		5aγ	욥의 제사의 사유	
		5aδ		
5b			[요약] 욥은 항상 그러했다.	

욥기의 서술자는 [도입]에서 우스 땅에 한 인물을 등장시키고, [i. 이야기 진행]에서 욥의 자녀들을 소개하고 [ii. 이야기 진행]에서 그의 부에 대해 언급한다. [iii. 이야기 진행]에서 자녀를 위한 번제에서 욥의 경건한 일면으로, 악을 멀리하려는 그의 노력을 본다. 한편, [ii. 이야기 진행]에서 부에 대한 욥의 일면을 사례로 소개하지 않는 서술자의 기법은 이후 욥의 재산(또는 자산)이 욥기 1:6 이후에 이어질 사건들의 복선구실을 하도록 남겨둔다. 개별 사건의 전진과정에서 '정보 진행'(IP)이란 주이야기 흐름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앞으로 진행시키지 않으며 이야기 상연(재연) 차원에서 머물게 하여, 단지 독자들에게 정보적 차원의 내용을 추가해 준다. '2.4.3. 구문의 의미론적 해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행은 주요 내용의 뼈대를 구성하는 '사건의 점진적 진행'(event-progress)과 '정보의 점진적 진행'(information- progress)[27]으로 구분된다. 사건진행은 경우에 따라 시간의 순서와 함께 이어지는 동작뿐만 아니라 내러티브에서 전개를 위한 논리적인 구성 요소의 순서를 밝혀준다. '사건진행'과 '정보 진행', 두 경우 모두 접속사 '바브'가 사용되는데, 이때 '바브'는 진행을 알려주는 구문론적 표지의 기능을 한다. 화자와 청자라는 화용론적 시간에서 바라볼 때, 사건 진행은 '새로운 정보'(new information)를 추가적으로 알려주지만, 정보 진행은 '부차적인 정보'(additional information)를 안내해 준다. 반면, '배경 정보'(background information)는 이야기를 처음 진행시키는 R에서 볼 때, 대과거 시점으로 역행(Regress)해 간다. 시간선상의 이야기의 흐름에서 도식화시켜 본다면, '배경 정보'는 다음과 같다.



다른 한편, '독서 정보'(Leserinformation/Reader's Information: LI)는 시간선상의 전개되는 사건 밖에서 독자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것인데, 욥기 1:1-5 중에서는 1:1aβ "그의 이름은 욥이다"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독자들

27) 비교, R. Bartelmus, "Sachverhalt und Zeitbezug", 359, 각주 14.

은 욥기 전체를 읽으면서 욥은 누구인가를 질문하게 한다.

2.4.4. 욥기 1:1–5의 노에틱 적용 주해

1	‘익스-카탈(x-qatal)’은 ‘절대적 시작’[28]을 알리는 동사구문론적 표현이다. 욥기의 저자는 오래 전에 있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욥기의 초두를 시작한다(겔 19:14). אִיּוֹב(이욥/욥)은 עוּץ(우쯔/우스)라는 지역에 살았다. ‘우스’는 구약성경의 이스라엘에서 보았을 때, 요단 동편 땅인 에돔의 지역으로 나타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네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애 4:21) 저자가 바라보는 위치가 요단 서편이라는 것은 3b에서도 ‘바헤이 하이쉬 하후 가돌 밋콜 브네 케뎀’(וַיְהִי הָאִישׁ הַהוּא גָּדוֹל מִכֹּל־בְּנֵי־קֶדֶם/욥은 동방의 모든 자손들 중에 큰 자)이라고 소개하며, 저자의 관점이 요단 서편에서 동편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이러한 서술자의 입장을 대변하듯, 저자는 욥을 ‘저 사람’이라고 먼 곳을 지칭하는 원칭지시대명사 남성 단수 הוּא(후/그, 저)를 사용하고 있다(욥 1:1; 비교. 1:3). 그 사람은 ‘신행일치’를 이룬 온전한 사람이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은 1bα-β에서 표현적 차원에서 ‘베카탈(w^{e}qatal)’ + adjective(x3) + ‘베코텔(w^{e}qōtel)’의 이야기 사슬로 전개하고 있다. 1bβ의 ‘베코텔(w^{e}qōtel)’은 ‘욥이 악을 멀리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능동형 분사구문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이는 1bα에서 열거한 욥의 성격적 특징을 3회 사용된 형용사로 열거하고 있는데, 형용사는 주어의 특질을 함의해주고 있다.[29] 1bα에서 열거된 주어의 특질을 1bβ에서는 요약해 주고 있으며, 요약적 측면을 표현하기 위하여 1bβ는 표현적 층위에서 ‘베코텔(w^{e}qōtel)’ — ‘보편적인 사건’을 사용하고 있다. 즉 ‘악을 멀리하는 자’라는 것은 1bα(온전, 정직, 하나님을 경외)의 요약임을 알 수 있다.[30] 1bβ는 구문론적 특이성이 관찰되는데, 1bα의 וְהָיָה(베하야/그리고 있었다)와 1bβ의 וְסָר(베싸르/멀리하는)는 구문 상 연결되어 있다. 어구 היה+ ‘코

28) Marvin H. Pope, *Job*, The Anchor Bible 15 (New He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3), 3; David J. A. Clines, *Job 1-20*, 9. 포프(Marvin H. Pope)는 선행하는 사건과 그 어떤 연결도 없이 도입되는 ‘익스-카탈(x-qatal)’의 구문형식을 “clear-cut beginning”을 지시하는 관습적인 공식임이라고 말한다. 마소라 성경은 ‘독립적인 내러티브(an independent narrative)’를 큰 이야기 안에 짜 넣을 때 ‘익스-카탈(x-qatal)’의 구문형식을 사용하고 있다(삼하 12:1; 에 2:3). 이러한 이야기 시작 공식은 역사적인 내러티브의 ‘정규적인 공식(regular formula)’ 또는 ‘관습적 공식(customary formula)’인 wayyehi와 구분된다(삼상 1:1).

29) 마소라 본문은 욥을 명사연계형으로 ‘경건한 자’(요레 엘로힘)로 언표하고 있지 않다. 단지 ‘경건한’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해서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야레 엘로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포프(*Job*, 1)와 클라인스(*Job 1-20*, 2)의 “one who feared God and shunned evil”, “a God-fearer, a shunner of evil”은 마소라 본문의 의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의역이라 할 수 있다.

30) Marvin H. Pope, *Job*, 1. 포프 역시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one who feared God and shunned evil”로 하반절을 번역한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이라는 명사 구문이 형용사적으로 사용되었음을 간과한다.

1	텔(qōtel)'(절대형)은 '직업적인 성격의 활동'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표현으로, 요셉 이야기의 초두(창 37:7), 그리고 모세의 소명기사(출 3:1)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욥기 1:1b에서 '욥이 악을 멀리하는 것'은 욥 자신에게는 직업적인 성격의 활동이 비견됨을 함축해주고 있다. 이러한 이해는 5aβ에서 욥이 대가족의 수장으로서 행위, 즉 자식들을 위해 제의의 책임을 수행하는 아버지의 행위(5bβ)와 일치한다. 이러한 가족 제사 장면은 제의에서 제사장직이 별도로 분화되지 않았던 족장시대의 제의 정경을 보여주고 있다. 5aβ에서 욥은 자신의 자녀들을 — '바예캇데쉠(וַיְקַדֵּשֵׁם)' — 거룩하게 했다. 그는 단지 자녀들의 부정을 제어하는 정결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거룩하게 성별하고 있다. 이는 욥의 가문이 제사장적인 반열에 있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고 역추론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거룩하게 성별하는 것은 특별한 제의적인 목적[31]을 위해 수행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욥기 1:1에 나타난 욥의 경건과 욥기 1:2-3의 넘치는 복은 상호 연결되어 있었다.
2 3aα 3aβ 3b	욥기 1:2-3은 주인공 욥의 자녀들과 그의 물질적인 복을 나열하고 있다. 저자는 넘치는 욥의 복과 도입부에 밝힌 욥의 경건을 상호 연결하고 있다. 그가 동방의 사람들 중 큰 사람이 된 것은 단지 '우연의 소산'이 아니라 그의 '경건한 삶 덕택'이었음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4a 4b	욥의 자식들 또한 우애가 좋다. 각각 돌아가며 잔치를 배설할 정도의 아들들이라면 이미 장성하여 결혼한 정도의 자식을 뜻하며, 욥의 일곱 아들들이 누이 세 명도 초대한 것으로 보아 욥의 딸들은 출가하지 않은 채 아버지 집에 거했던 것[32]을 암시한다. 4절을 통해서 볼 때, 욥은 소유가 충만하였고, 그의 가정 또한 온전한 화평과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5aα 5aβ 5aγ 5bδ	번제는 자식들의 잔치 이후 단 한 번으로 족하였다. 그러나 욥의 제사는 차고 남음이 있었다. 그는 아들들의 숫자에 따라 번제를 하는 비상한 경건의 사람이었다. 욥의 이례적인 경건은 אוּלַי(울라이/아마도)라는 가정적 상황을 예견하는 예방적인 성격이었다. 욥은 자식들이 하나님께 생각으로나마 하나님께 대한 죄를 범하지 않을까 하였다. 텍스트 표현적인 측면에서, 욥기의 저자는 자식들의 범죄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은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임을 설명하고자 '익스-카탈 베카탈(x-qatal wᵉqatal)'을 사용하였다. 또한 욥은 스스로 하나님에 관련되어서 저주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을 정도로 온전한 경건함을 지니고 있음을 저자는 בֵּרַךְ(베레크/축복하다)라는 '완곡어법(euphemism)'으로 표현하고 있다(비교. 욥 2:9).

31) David J. A. Clines, *Job 1-20*, 16.

32) Marvin H. Pope, *Job*, 7.

5b	욥의 행실은 항상 그러했다 함으로, 1bβ로 소급하며 요약하여 주고 있다. 그리고 욥기 1:1-5의 단락의 내용적 전개는 다음과 같이 구조화될 수 있다. A: 욥의 품행(1b) B: '욥의 자녀들'(2절) - '봐익톨(wayyiqtol)'로 도입 ['물질적인 복'(3절)] - וַיְהִי(바예히)로 도입(3aα)과 종결(3bβ) B':'자녀들의 잔치'(4절) – '베카탈(w^{e}qatal)'로 도입 ['욥의 만회적인 번제'(5aα-γ)] - וַיְהִי(바예히)로 exposition 도입 A': '욥의 성격의 경건함'(5b) 욥기의 첫 단락은 욥의 경건한 성품으로 A와 A'로 inclusio를 형성하고 있고, 욥의 자녀들에 대한 소개와 그들의 잔치 관습에 관한 내용은 각각 B와 B'로 내적인 평행을 이루고 있다. 표현적 차원에서 '봐익톨(wayyiqtol)'과 '베카탈(w^{e}qatal)'로 각각 사실과 정보 진행을 알려주고 있다. [ ]란은 욥의 가시적인 자산의 축복이 번제에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즉, 그는 받은바 물질적 복을 자녀들이 악에서 떠나도록 하는 데 풍성히 사용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 ]란의 두 경우 모두, '바예히'[33]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사건을 보도함으로 이 사건이 이야기 주정보 안에 들어옴을 알려주는 것임을 구문론적으로 구분해 주고 있다.

3. 나오는 말

현대의 언어학의 발전은 성경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 풍성한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정립된 문법적인 서술 방법 위에 세워진 인도-게르만어 언어 체계와 셈어인 히브리어 체계가 불일치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고의 필자는 복수 언어 간에 불변의 상수를 밝힌 노에틱적인 접근 방법을 소개하며 그 유용성을 욥기 1:1-5까지의 단락으로 예시하여 보았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히브리어의 상대적인 시제 체계를 지닌 마소라 본문을 '표현적 층위'(구문론)와 '내용적 층위'(의미론)로 구분하여 구문과 의미가 어떻게 긴밀하게 엮어져 가는지 잘 보여준다. 또한 노에틱에 기초한 동사구문론의 활용은 '화용론적인 측면'에서도 유용한데, 단락의 시작과 종결, 사건의 진행과 멈춤을 통해 독자들에게 사건 이해의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서술자가 부각시키는 부분과 배경 정보로 알려지는 점을 구분해 주며, 독자들에게는 독서정보와 요약적인 정리까지 해주고 있다. 본 소고의

33) R. Bartelmus, *Einführung in das Biblische Hebräisch*, 114; 비교, Marvin H. Pope, *Job*, 3.

필자가 위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히브리어 동사의 형태에 대한 노에틱적인 접근은 동사의 구문론(verbal syntax)과 의미론(semantic), 그리고 문장론(clause syntax)과 화용론(pragmatic)까지 아우를 수 있다. 본 소고의 필자는 텍스트 언어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노에틱적인 접근방법을 통해서, 성경 주해가 더욱 풍성하게 진일보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주제어>(Keywords)
노에틱, 성경 히브리어 문법, 구문론과 의미론, 화용론, 욥기 1:1-5.
Noetic, grammatic system of Biblical Hebrew, syntax and semantic, pragmatic, Job 1:1-5.

(투고 일자: 2017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17년 2월 28일, 게재 확정 일자: 2017년 4월 26일)

<참고문헌>(References)

권성달, “성서 히브리어 명사 문장에서의 한정성에 관한 연구 – 앤더슨, 제네트, 글리너트의 이론을 중심으로”,「성경원문연구」29 (2011), 7-28.

권성달, “성서히브리어 명사문장의 어순에 관한 연구”,「성경원문연구」35 (2014), 170-194.

우상혁, “성경 히브리어 동사형태 연구: 시간, 상, 양태를 중심으로”,「개혁논총」17 (2011), 41-73.

장성길, “성경 히브리어 동사 체계 내에서의 발화수반행위 이론과 양태성 개념에 기초한 소고 ”,「성경과 신학」54 (2010): 1-34.

장성길, “성경 히브리어 동사의 양태 특성 소고”,「성경원문연구」38 (2016), 99-120.

Bartelmus, R., *HYH: Bedeutung und Funktion eines hebräischen <Allerweltswortes> - zugleich ein Beitrag zur Frage des hebräischen Tempussystem*, ATSAT 17, S. Ottilien: EOS Verlag, 1982.

Bartelmus, R., *Einführung in das Biblische Hebräisch – ausgehend von der grammatischen und (text-) syntaktischen Interpretation des althebräischen Konsonantentexts des Alten Testaments durch die tiberische Masoreten-Schule des Ben Ascher: Mit einem Anhang Biblisches Aramäisches*, Zürich: TVZ, 1994.

Bartelmus, R., “Sachverhalt und Zeitbezug: Pragmatisch-exegetische Anwendung eines noetischen Theorems auf 1 Kön 1”, R. Bartelmus, ed., *Auf der Suche nach dem archimedischen Punkt der Textinterpretation. Studien zu einer philologisch-linguistisch fundierten Exegese alttestamentlicher Text*, Zürich: Pano Verlag, 2003, 355-381.

Bühler, C., *Sprachtheorie: Die Darstellungsfunktion der Sprache*, Stuttgart: G. Fischer, 1934.

Chomsky, N., *Aspekte der Syntax-Theorie*,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69.

Clines, David. J. A., *Job 1-20* ,WBC 17, Dallas: Words Book, 1989.

De Saussure, F., *Grundfrage der allgemeinen Sprachwissenschaft*, Berlin: Walter de Gruyter, 2001.

Denz, A., *Die Verbalsyntax des neuarabischen Dialekts Kwayriš (Irak): Mit einer einleitenden allgemeinen Tempus- und Aspektlehre*, Abhandlung für die Kunde des Morgenlandes XL:1, Wiesbaden: Steiner, 1971.

Denz, A., “Tempus und Aspekt? Vorstellung eines neotischen Modells”, N. Nebes, ed., *Tempus und Aspekt in den semitischen Sprachen*, Jenaer Beiträge zum Vorderen Orient, Band I, Wiesbaden: Harrassowitz, 1999, 37-41.

Driver, S. R., *A Treatise on the Use of the Tenses in Hebrew and Some Other Syntactical Questions*, The Biblical Resource Serie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892.

Gross, W., *Verbformen und Funktion: WAYYIQṬL für die Gegenwart. Ein Beitrag zur Syntax poetischer hebräischen Schriften*, ATSAT 1, St. Ottilien: EOS Verlag, 1976.

Güttgemanns, E., *Die Funktion der Zeit in der Erzählung*, Forum theologiae linguisticae 23:4, Bonn: Linguistica Biblica 1974.

Hardmeier, C., *Textwelten der Bibel entdecken: Grundlage und Verfahren einer textpragmatischen Literaturwissenschaft der Bibel*, Textpragmatische Studien zur Literatur- und Kulturgeschichte der Hebräischen Bibel, Band I:1,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3.

Koch, K., *Was ist Formgeschichte? Methoden der Bibelexegese*,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9.

Koschmieder, E., "Zur Bestimmung der Funktionen grammatischer Kategorien", E. Koschmieder, ed., *Beiträge zur allgemeinen Syntax*, Heidelberg: Carl Winter, 1965, 1-60.

Koschmieder, E., "Die noetische Grundlage der Syntax", E. Koschmieder, ed., *Beiträge zur allgemeinen Syntax*, Heidelberg: Carl Winter, 1965, 70-89.

Koschmieder, E., "Das Gemeinte", E. Koschmieder, ed., *Beiträge zur allgemeinen Syntax* , Heidelberg: Carl Winter, 1965, 101-106.

Lämmert, E., *Bauformen des Erzählens*, Metzler Studienausgabe, Stuttgart: Metzler, 1989.

Longacre, R. E., "Discourse Perspective on the Hebrew Verb: Affirmation and Restatement", Walter R. Bodine, ed., *Linguistics and Biblical Hebrew*, Winona Lake: Eisenbrauns, 1992, 177-189.

Longacre, R. E., "Weqatal Forms in Biblical prose", Robert D. Bergen, ed., *Biblical Hebrew and Discourse Linguistics*, Dallas: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Winona Lake: Eisenbrauns, 1994, 50-98.

Michel, D., *Grundlegung einer hebräischen Syntax*, *Teil 1: Sprachwissenschaftliche Methodik*, *Genus und Numerus des Nomen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7.

Niccacci, A., *The Syntax of the Verb in Classical Hebrew Prose*,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8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0.

Pope, Marvin, H., *Job*, The Anchor Bible 15, New He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3.

Schneider, W., *Grammatik des biblischen Hebräisch*, München: Claudius, 1974.

Stoellger, P., “Semantik”,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7 (2004), 1187-1189.

Weinrich, H., *Tempus. Besprochene und erzählte Welt*, Sprache und Literatur 16, Stuttgart: C. H. Beck, 1971.

<Abstract>

Noetic Analysis of Classical Hebrew and His Application to Job 1:1-5

Minsu Oh
(Chongshin University)

This essay suggests an new approaching method to interpret biblical narrative texts. The new approaching based on verbal syntax of the classical Hebrew is called as noetical interpretation of texts. This essay tries to show how the verbal syntax helps understand profound meaning of a narrative text. Before doing so, the author briefly surveys grammatical distinct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classical Hebrew and the indogermanic languages. In historical respect of both language families, the use of the former goes back to semitic language cultures. The grammatical systems of the later was fundamental established by the Greek's Philosopher Aristoteles. Difficulties for syntactical and semantical interpretation are caused by different uses of employed verbs. Thus the noetical approaching is alternatively proposed in this essay. It differentiates content's level of a sentence from expression's level, so that one may notice nuances of narrator's intention. The noetical analysis mainly gives attention to explain interlingual consistent elements and is very helpful to inform beginning and conclusion of a paragraph, progress and ending of events, foreground and background information toward readers. The author applied this grammatical system to Job 1:1-5. Finally, this essay ist pointing out the adequateness of the noetical analysis for Hebrew texts.